

“광주로 예술 여행하러 떠나요” 관광브랜드 발굴 시동

여러 분야 전문가와 추진협업회의 예향광주 대표 ‘관광 브랜드’ 개발 4대 권역 관련 체류시간 증대 제시

광주광역시와 광주만의 차별화된 예술 관광 브랜드 상품 발굴에 나서는 등 ‘예술 관광도시’ 만들기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관광도시 광주’ 추진협업회의를 열고 예술관광 브랜드화 사업 5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1995년부터 시작한 광주비엔날레의 명성과 2015년 들어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예술분야 성숙에 발 맞춰 예술여행을 예향광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관광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를 개발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관광브랜드에



적합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관광 콘텐츠 공급 경로 확대, 도시개발과 연계한 도시공간 전반 예술코드 접목, 주민친화형 착지형 상품 운영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술관광 브랜드화 사업 5대 전략으로 ▲예술 관광 현장 역량 강화 ▲4대 권역 제안(비엔날레 권·일상예술, 아시아문화전당권·동시대

예술, 양림사직권-근대예술, 무등산권-전통예술)과 권역별 콘텐츠 및 인프라 확대 ▲4대 권역간 연계를 통한 관광객 방문 규모와 체류시간 증대 ▲도시공간 전반을 예술 코드와 접목 ▲예술관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10대 과제로 ▲예술 관광 전문 인력

육성 및 창업, 일자리 확대 ▲예술 창작자 및 문화공간 관광수요태세 강화 ▲기존 자원 및 콘텐츠, 문화공간의 경쟁력 강화 ▲신규 시설 및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확대 ▲연계 운영 시스템 및 패키지 구축 ▲예술 관광 거점 및 자원 정보 확산 시스템 구축 ▲공공 및 민간시설의 예술 공간화 촉진 ▲장소성 기반 광주다운 스토리의 예술적 접목 ▲예술 관광 지원 및 협력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 ▲예술관광 활성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제도 마련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광주예술가와 지역 청년 여행기획자를 연결해 관광객들이 반일 또는 하루 정도 함께하는 ‘광주 예술인과의 여행’, 지역내 예술여행 거점에서 외국인들이 1박 2일 이상 묵을 수 있는 ‘아트스테이’ 프로그램, 지난해 여행주간에 운영했던 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해 만든 ‘광주 예술유랑’ 등과 같은 다채로운 예술여행 상품을 선보이기로 했다.

청년 기획자의 예술여행상품은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19광주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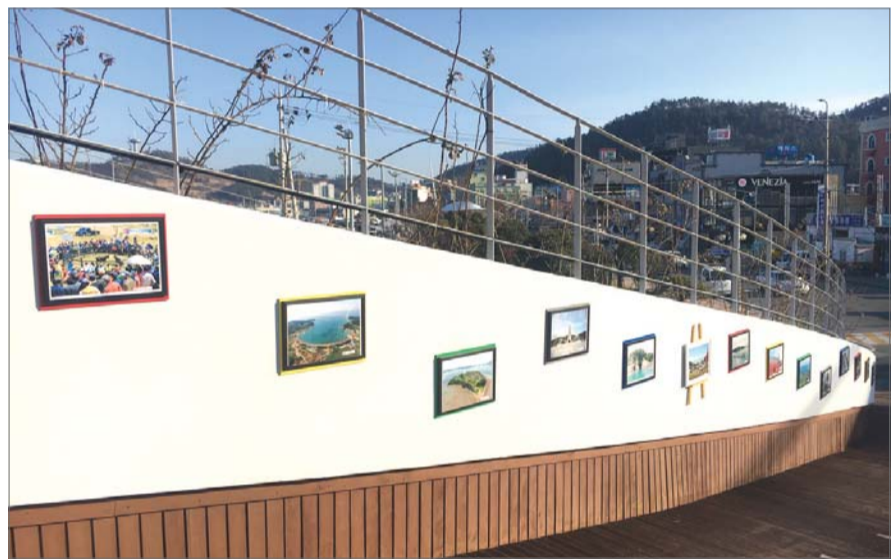
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전 세계 209개국 1만5000여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판매·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광협회 등 지역관광업계와 연계를 통해 국제행사가 관광분야와 결합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예술여행도시 광주’ 브랜드 발굴이 광주가 보유한 매력적인 예술코드를 음악, 현대문학, 영화, 공연예술 뿐 아니라 고미술품, 건축물 등 도시 전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항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최근 특수목적관광과 같은 대안관광이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광주가 지닌 예술분야 저력을 지역의 대표 관광브랜드화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규모 행사와 접목해 광주 관광이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해조류센터 옥외 갤러리.

“청정바다 완도의 관광지, 한눈에!”

해조류센터 옥외 갤러리에 사진 전시

완도군은 해조류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해조류센터 옥외 갤러리에 완도 관광지 사진 60점을 전시하여 봄나들이 관람객 맞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나해 11월부터 전시해 온 학생 백일장 입상 작품과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경 사진 60점은 내리고 그 자리를 관광지 사진으로 교체했다.

완도 관광지 사진은 ‘2018년도 추억의 사진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이며 주

요 관광지와 주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으로 구성됐다.

작품 중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금당팔경 모습과 가고 싶은 섬 소안도와 생일도 등 도서 지역 전경이 그대로 액자 속에 옮겨져 있다.

사진에는 관광지 위치와 생활상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군은 관광지 사진을 오는 4월까지 전시하고 가정의 달인 5월부터는 화목한 가정을 주제로 한 가족사진을 수집하여 전시할 계획이다.

/전남 완도=이제건 기자 wando1106@

울산시, 우수 中企 글로벌 수출길 연다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해외 마케팅 4년간 최대 2억 지원 등

울산시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21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기업은 매출액 100억~1,000억 원 미만, 직·간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과 매출액 50억~1,000억 원 미만, 직·간접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인 혁신형 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4년간 최대 2억 원과 지역 자율지원프로그램 3년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울산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해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난 14일 열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

또한 SGI 서울보증, 신한은행 등 7개 민간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증 보험료 할인 및 금융우대 등 11개 시책이 연계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비롯해 신기술 이전을 접목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축적

되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최인락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4 | 해질 / 18:18

2월 22일 (금) 음력 : 1월 18일

수도권 날씨 -1 ~ 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7/9, 동두천 -5/11, 가평 -6/11, 파주 -7/9, 서울 -1/8, 양평 -5/10, 인천 -2/7, 수원 -1/8, 용인 -1/8, 평택 -4/8, 백령도 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기도, 독립·예술영화 제작하면 1억 지원

경기도가 다양성 영화 제작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다양성영화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제작·배급 상영 규모가 작은 영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성 영화 제작비를 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참가 작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는 일반부문과 경기도 특별부문으로 진행된다. 일반 부문은 장르와 상관없이 예정돼 있거나 제작 중인 장편 다양성 영화다. 특별부문은 경기도가 주요 소재이거나 경기도 촬영분량이 70% 이상인



작품이다. 두 부문 모두 순수 제작비가 10억원 이하인 다양성영화(다큐멘터리 제외)다. 또 올해 말까지 제작이 완료되어야 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장성군 中企 청년 주거비 지원

장성군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성군이고,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이다. 또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남 장성=봉태영 기자